

#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및 정책 동향

박병주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1. 머리말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글로벌 ICT 기업 및 금융기관 또는 스타트업(Start-Up)들에서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ICT 기술과 결합하여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액센츄어(Accenture)에 의하면 핀테크 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4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80억 달러로 전망된다 [1]. 핀테크의 영역은 단순 금융서비스만이 아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자율주행자동차,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며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핀테크 정책 동향 분석을 위하여 2장에서 핀테크의 개념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서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고, 4장에서 국내외 핀테크 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5장에서 국내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 2. 핀테크의 개념과 영역

핀테크는 단순하게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ICT를 활용하여 기존의 금융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넓게는 금융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핀테크는 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모바일 디바이스, 빅데이터,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모바일 디바이스를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rnst&Young과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2014 핀’에서는 핀테크를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킨 형태의 전통적 핀테크(Traditional Fintech)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 핀테크(Emergent Fintech)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의와 영역은 다음과 같다[2].

### 2.1 전통적 핀테크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기술이 접

<표 1> 핀테크 서비스 분류와 특징

구분	특징
지급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간편결제와 송금으로 분류 가능</li><li>모바일 디바이스를 신용카드처럼 사용</li><li>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이 없이 송금 가능</li></ul>
P2P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을 통해 개인 간 대출 증가</li></ul>
전자화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급결제를 위한 수단</li><li>자체로서의 가상화폐, 결제플랫폼 역할 수행</li></ul>
증권 및 금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가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li><li>개인의 은행,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li></ul>
인터넷전문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오프라인 절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 금융거래 진행</li><li>비대면거래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기존 은행의 업무 수행</li></ul>

목되며 생기는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금융서비스들이 기술과 접목되어 전자적 채널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금융 인프라의 지원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적 핀테크의 대부분은 기존 금융회사 및 대형 IT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면대면 중심의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 2.2 신흥 핀테크

신흥 핀테크는 기술을 중심으로 기존 금융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금융 인프라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기존 금융서비스를 분야별로 나누어 비금융권의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다른 기술들과 함께 결합되며 인터넷전문은행, P2P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 3.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동향

핀테크는 지급결제, 대출, 전자화폐, 증권 및 금융정보, 인터넷 전문은행의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3]. <표 1>과 같이 핀테크 산업 분류와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 3.1 국내 핀테크 서비스 동향

국내 핀테크 산업은 서비스 이용 형태와 이미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복잡한 규제로 인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급결제 시장 위주로 성장했다. 하지만, P2P 금융, 증권 및 금융정보 분야의 경우 최근 규제 완화와 지원 제도 마련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화폐 시장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 중개소 위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2017년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 3.2 국외 핀테크 서비스 동향

국외 핀테크 서비스는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회사 및 ICT 기업,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활발한 참여로 핀테크 서비스 전반에 걸쳐 발전을 이루고 있다. 또한,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렌딩클럽(Lending Club) 등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권과의 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4. 국내외 핀테크 정책 동향

### 4.1 국내 핀테크 정책 동향

국내 핀테크 정책의 경우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

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과잉규제 또는 관련 법안 미비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다.

국내 핀테크 관련 정책 동향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관련 법안 개정, 규제 완화 및 핀테크 활성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 4.1.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7년 2월, 신(新)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핀테크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상통화 및 외환송금, P2P 금융, 핀테크 기반 기술 영역 등을 선정하고 규율체계 마련,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4].

- **가상통화 및 외환송금 부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의 국제 거래량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의 가상통화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율체계 마련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금융회사만이 외국환 업무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소액 해외 송금업을 2017년 12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 **P2P 금융:** 기존 P2P 대출 관련 법안에서는 대출 계약 시 소비자의 계약확인 방법이 자필기재, 음성 녹취 등으로 제한적이었지만 2017년 1월부터 양상통화 등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으로 방법을 확장했다. 또한, 기존 P2P 대출의 경우 일반 대부업 규제가 적용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P2P 환경의 특성에 맞게 2017년 12월부터 재정비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 **로보어드바이저:**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차례의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는 소액투자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 **핀테크 기반 기술:** 불명확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기준을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했으며, 핀테크 서비스에 이용되는 API 제공 범위 확대 등과 같은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4.1.2 금융위원회

국내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잡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며,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신성장동력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2015년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2016년 1월에는 ‘금융규제 운영 규정’, 2016년 10월에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규제 전반 재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함께 2016년 초, 영국의 금융 샌드박스 국내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2017년 3월 정확한 도입 시기를 발표했다.

#### 4.2 국외 핀테크 정책 동향

##### 4.2.1 미국

초기에는 미국이 영국에 비해 핀테크 산업 발전이 느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다방면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전 세계 핀테크 투자의 80%를 유치하는 등 영국과 더불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기존 금융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한 이후, 실리콘밸리의 기술력과 뉴욕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지급결제, P2P 대출, 자산관리, 금융정보 분석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선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정책은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와 같은 면책제도를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잡스법(JOBS, Jump-Start Our

<표 2> 미래창조과학부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구분	현황		개선 및 지원 방안
가상통화 및 외환송금	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량 증가	국내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율 체계 필요	가상통화 거래증가 및 보관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수립, 금융위, 2017. 6월)
	기존 금융회사만이 외국환 업무 가능	핀테크 기업에서는 단독 해외 송금서비스 불가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소액 해외 송금업' 허용(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2017. 12월)
P2P 금융	P2P 대출 계약 시 제한적 소비자의 계약확인 방법	자필기재, 음성녹취 등으로 한정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 확대(영상통화 허용 유권해석, 금융위, 2017. 1월)
	P2P 대출에 기준 일반 대부업 규제 적용	자기 자본의 10배 이내에서만 대출 가능	P2P환경을 고려해 P2P 대부업자에 대해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2017. 12월)
로보어드 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테스트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2016년 테스트를 통해 2017년 도입 예정(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 마련, 금융위, 2016. 8월)
핀테크 기반 기술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기준 불명확함	기술평가보증 심사, 벤처캐피탈의 지원 기준 불명확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및 벤처 투자요건 명확화(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중기청, 2016. 11월)
	은행·금융투자업권 중심의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	조회, 입출금이체 등 공동업무 위주의 표준화 API만을 제공	오픈 플랫폼 입계 수요 등을 고려한 API 제공 범위 확대 등 활성화 방안(금융위, 2017. 6월)

Business Start-Ups Act)'이 미국의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5].

#### 4.2.2 영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과 IT 융합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런던의 국제 금융센터와 스타트업 클러스터인 테크시티(Tech City)를 통해 가장 빠른 핀테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테크시티 내의 '레벨 39(Level 39)'는 유럽 최대의 핀테크 클러스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핀테크를 통한 거래 규모는 2008년 이후 매년 74%의 성장을 기록해, 27%인 세계 성장률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 감독체계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행위 감독기구로 이원화하고, 무역투자청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 함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일정기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해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6][7].

#### 4.2.3 중국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중국 정부의 실험적 규제완화로 인해 급성장했다. 핀테크와 같은 신규 성장산업에 대해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고 기존 금융사와의 경쟁을 유도했다. 일부 시범지역 또는 기업에 대해서 유연한 규제를 적용했다. 2008년 비금융회사의 소액대출 전문 금융회사 설립 허용부터 최근 2015년 10월 제13차 5개년 계획(13.5계획)의 '인터넷+액션플랜'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핀테크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사업 추진 과정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을 통해 법적·제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16년 핀테크 거래 금액이 4,433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

<표 3> 국내외 핀테크 정책 현황

		국내	국외		
주요 발전 서비스 분야	분야		미국	영국	중국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편 결제 분야 위주로 발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테크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발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금융회사와 스타트업의 협업으로 고르게 발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결제와 P2P 대출 분야 위주</li> </ul>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페이, 네이버페이, K뱅크, 쓰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oogle, eBay, Facebook, ApplePay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ansferwise, Funding Circle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lipay, 중앙온라인보험 등</li> </ul>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과잉규제를 핀테크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규제 완화</li> <li>스타트업 육성 환경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따라 적절한 정책 배치</li> <li>시장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규제</li> <li>실리콘밸리, 뉴욕 금융시장 특성에 맞는 규제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에는 정부와 은행 주도로 핀테크 서비스 성장</li> <li>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체계 분리</li> <li>핀테크 중점 클러스터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성장사업에 대해 실험적 규제 완화</li> <li>완화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적용</li> <li>열린 접근법을 통한 핀테크 기업 육성</li> </ul>

서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또한, 핀테크 산업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열린 접근법을 통해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성장시켰다[8].

## 5. 맷음말

핀테크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외에도 호주, 일본, 이스라엘 등 다양한 핀테크 강국들이 있으며, 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규제 완화 및 강화, 산업 장려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 서비스 유형에 맞는 중점 과제 추진, 규제완화, 육성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 핀테크 관련 정책의 다양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기술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기존 금융서비스와 과잉규제, 국내 금융환경의 특성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태이다.

국내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 완화, 핀테크 서비스 육성 환경 조성 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정책 및 규제, 각 정책

및 규제의 시행으로 인한 결과와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내 핀테크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정책적으로 높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ICT 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P-2017-2016-0-00304].

## [참고문헌]

- [1] Accenture, 'Partnership Fund analysis of CB Insights data,' 2015.
- [2] Ernst&Young, 'China and UK FinTech,' 2016.11.18.
- [3]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외 핀테크 관련 기술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분야 발굴,' 2016.02.
- [4] 미래창조과학부,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발표,' 2017.02.17.
- [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ICT Spot Issue,' 2016.04.
- [6] 양효은,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11.08.
- [7] 정유신, '핀테크의 확대 추세와 금융투자회사의 대응방안,' 금융투자협회, 2016.
- [8] 한국인터넷진흥원,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Fintech 편,' 2015.05.